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고 바로 실상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나쁘고 좋고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처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대 성인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 부처가 따로 있다 생각하고 또 조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상은 따로 있고, 부처는 부처대로 따로 있고 법신은 법신대로 따로 있고, 문수 말입니다. 보현은 보현대로 따로 있고 약사는 약사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넓게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삼학은 삼학대로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계도 정에 들고 혜도 정에 들었으니, 그 정마저도 모두가 공해서 쉴 사이 없이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니 어떤 걸 할 때 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모두가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쓸 양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아마 다 전달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들어보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컴퓨터도 있고,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를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탐지기와 또 신족통,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팩시밀리, 또 천이통 즉 무전통신기, 그리고 우리 천체망원경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다 재료로 주어져 있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얘깁니다. 어서 귀가 트이고 눈을 떠서 여러분이 자유인이 돼야만이 흐뭇하게 살 수 있고 싱긋이 웃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시스템의 재료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믹서기로 비유한다면 재료가 있어야 거기다 넣고 갈죠. 그런데 재료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오신통의 시스템은 바로 믹서기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어느 거든지 들어가면 그냥 갈려 나오는 자동적인 기계와 같습니다. 우린 자동적인 기계와 같다 이겁니다. 무심 도리의 자동적인 기계와 같은 이 자체는 여러분이 과거에 사실 때, 지금 우리가 살듯이 살 때에…, 이거부터 얘기해야겠군요.

미래의 과거는, 미래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 우리 지금 현재가 과거입니다. 이 과거에서 볼 땐 미래고, 미래에서 볼 땐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신세계와 이 지금 현실 세계가 둘이 아니게 여러분은 그렇게 모두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교차로를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밤과 낮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응용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생각에 모두가 몰두해서 한마음으로 걸림 없이 여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만 얻는다면…. 그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물리가 터지는 게 아니고, 또 늦게 왔다고 그래서 물리가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거에 입력됐던,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팔자 운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고 자꾸 그렇게 병고, 가난, 그 모든 고통과 이름을 갖게 했는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 팔자와 모든 것은 거기에서 다 나오죠. 시시각각으로 나옵니다. 요만한 것 가지고도 싸움 안 할 것도 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그냥 분란을 마구 일으키게 조작을 하는 그놈들이 어느 놈들인가. 바로 내 속에 들어 있는 내 놈들입니다.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음 속에 다 되맡겨 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낫게 해라. 행복도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가 행복을 갖다 줘라.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것도 너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너다.' 하고 믿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료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아, 이것도 거기서 나온 것!' 하고 놓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따귀를 때렸어도 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거기다 놓을 수 있는 마음! 내가 없다면 어떻게 상대가 나를 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겨나서 있으니까 나를 때렸지요.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고 가지 괜히 비비고 가나요?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잘해도 내 탓이요 못해도 내 탓입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이 세상이 다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듯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들어서 이 세상을 설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다가 다시 맡겨 놓아서 입력이 다시 될 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니까, 인과니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하는 모두가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카세트에 넣었던 것도 되넣으면 앞서 넣은 게 없어지죠?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드리는데도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다면 팔자나 운명이 붙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고가 붙을 자리도 없어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불바퀴처럼 돌아가는 데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바퀴의 뜻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모르시걸랑 지금 시쳇말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혹성이 있기 때문에 별성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마음들은 별성인 겁니다. 우리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별성도 옷을 벗고 바로 같이 이 세상에 환생을 해서 또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과거에 살아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소리죠.

시공이 없이 돌아가면서 체가 없는 마음 마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즉 말하자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많이 나와서 그 입자가 분자가 돼서 이 혹성 바깥에 이렇게 세 겹으로 여섯 겹으로 첩첩이 싸고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신통을 블랙홀이라고 그러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운영하는 누진통을, 즉 레이더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레이더망은 무엇을 합니까? 들이고 내는 소임을 맡았고 통신하는 소임을 맡았고,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물질이니까 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지구 바깥에도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입자가 바로 분자로 화해서 바깥을 지키고 있는 그런 3단계가 있는 까닭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혹성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의 소임을 어디에서 다하고 있느냐. 법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 법계는 무엇이냐.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이 지금이 허공에 꽉 차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 있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균성이나 병균 이런 것들 뭐, 수많은 것이 다 그냥 접해서 사람이 못 살죠. 그런데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서 지켜준단 말입니다.

> 어서 귀가 트이고 눈을 떠서 자유인이 돼야만이
> 여러분이 흐뭇하게 살 수 있고
> 싱긋이 웃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맙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도 고맙고 불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흙도 고맙고,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네?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한테도 다 고맙죠. 소임을 다 해 주니 말입니다. 또 세포 하나하나가 있는 것만이 고마운 게 아니라 오장육부, 바로 대장, 소장, 위장, 간장, 콩팥, 방광, 척수, 척추, 이자, 식도, 이 모두가 전부 자기 소임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고맙죠. 심장으로부터 그 모든 작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렁이나 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하실 테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잘 꿰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것이 다 생기고 제일 나중에 생겼다고 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뒤집고 뒤집어서 인간까지 됐으면…, 인간으로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으로 살다가 좌천하는 수도 있죠. 만약에 독사가 된다면 독사의 집착과 그 의식이 그냥 거기에 모두 동결돼 가지고 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환토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 모습을 벗기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물이 다 똑같은 단물이라 할지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이고 선한 여러분이 잡숫는다면 아주 좋은 피가 될 것입니다. 아주 맑은 이슬이나 비도 그 물은 똑같지만 약초가 먹는다면 사람을 살리고, 독초가 먹는다면 독이 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 한생각을 잘하면 바로 약초가 될 것이고 마음 한번 잘못 쓴다면 독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팍 찔러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한 생각을 잘못해서 한 사람의 목을 끊을 때에 일곱 식구 여덟 식구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히 조심하고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기면서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집일 뿐이지, 당신이 움죽거리라고 하는 대로 움죽거릴 뿐이지 진짜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얼마나 모두가 빛이 나실 건지 모를 겁니다, 아마.

잘못된다고, 잘못됐다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잘못하다가도 잘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잘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하다가도 금방 남한테 악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는, 끝 간 데 없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각각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도리가 바로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바로 이것이 끝 간 데 없는 진리를 실험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고 바로 실상이면서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가 따로 없이 우리 생활이 도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건둥건둥하고 돌아갑니다. 요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진실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진실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세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독립군이 죽어 가면서 "까마귀야 까마귀야, 날 보고 웃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비웃고 또 나를 이렇게 죽여서 산산조각을 낸다 한들 나야 어찌 너희들이 뺏으랴. 나야 어찌 죽으랴. 영원할 것이니라." 했더랍니다. 그처럼 우리는 자기의 근본, 바로 자기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28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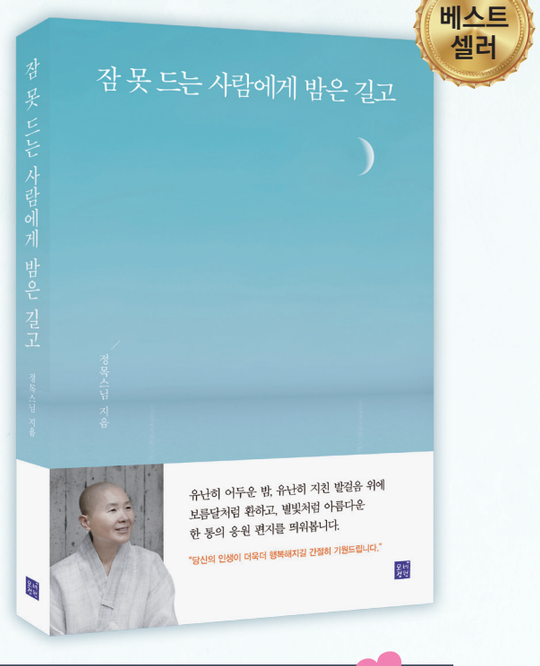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